

수의학교육의 발자취 - 2



양 일 석
 (재) 수안생명공학연구원 고문/서울대 명예교수
 isyang@snu.ac.kr



- 지난호에 이어 -

3.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은 1943년 12월1일 관립 대구고등농림학교로 설립인가를 받아 농학과(50명), 농예화학과(50명) 두 개 학과로 부터 출발하였다. 그러나 학생모집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음 해인 1944년 4월 1일 전문학교령에 따라 대구농림전문학교(3년제)로 개칭하고 농학과 50명, 농예화학과 50명을 모집하였다. 해방직후인 1945년 11월3일 미군정치의 지시(?)에 따라 수원농림전문학교와 병합하고 대구농림전문학교는 폐지되었다. 그러나 대구에서는 유수의 고등교육기관을 수원으로 보낸 것을 아쉬워하여, 재건운동을 전개한 결과 1946년 3월 1일 대구에서 다시 문을 열게 되었다. 그러나 수원으로 간 학생 중 모두가 돌아온 것은 아니고 일부는 수원농림전문학교에 남기도 하였다. 같은 해 6월 9일 대구농림전문학교는 4년제인 대구농과대학(농학과40, 농예화학과40)으로 개편되었다. 1951년 7월에는 초급(2년제) 대구농과대학이 4년제 대구농과대학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대구농과대학, 대구사범대학, 대구의과대학이 모체가 되어 1951년 10월6일 국립경북대학교 설립이 인가됨에 따라 이듬해인 1952년 4월1일 대구농과대학은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으로 개편되었다. 그리하여 봉산동 교사 시대를 마감하고 산격동 시대를 맞게 되었다.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의 전신인 대구고등농림학교와 대구공립농림학교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대구농림학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대구농림학교는 1910년 교동에서 개교하였으며 심상소학교 6년 과정을 마치고 진학하였으며, 100년 역사의 농업교육기관으로, 대구농림중학교(수업연한, 6

년)를 거쳐, 대구농림고등학교(3년)과 대구동중학교(3년)로 분리되고 현재는 대구농림자연과학고등학교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에서처럼 일본강점기에는 실무와 군사교육을 강화하고 수업연한을 단축할 목적으로 고등교육보다는 중등교육의 실업학교 특히 농업 교육 강화를 위해 전국에 걸쳐 농림학교를 설립하였다.

대구농과대학을 뒤돌아보면 관립대구고등농림학교는 현 대구은행 북쪽 아파트부지에서 개교를 하였지만 본교사(本校舎)가 없어 형편에 따라 옮겨가며 교육이 진행되다가 1950년 4월에 새로운 교사가 완공되었으나 곧 이어 발발한 6.25 사변으로 학교가 육군에 징발되는 상황에 이르고 다시 가교사 심지어 교수의 가정에서 강의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1951년 10월6일 국립 경북대학교가 발족하면서 여건이 나아졌다

수의학과는 농과대학 학과 중 농학과, 농예화학과, 원예학과(1952.4 신설)에 이어 네 번째로 설립(1954.4)되었다. 농학과 소속이던 하성진, 이학철이 수의학과 신설에 초석이 되었는데 학과의 초창기에는 이학철이 학과의 운영을 맡아 골격을 만들었으며, 학사과정의 첫 졸업생은 1958년 3월 25일 수의학사 26명을 배출하였다.

수의학과 초기의 교수진 구성을 살펴보면 하성진(1949.12.1~85.8.31)은 부임하여 농학과에서 축산학범론, 수의학과 개설 후에는 축산학, 가축사양학을 담당하였고, 이학철(1952. 4.1~69.5.30)은 농학과 시절에는 수의학대의(해부학 및 생리학, 병리학, 위생학)를 담당하다가 수의학과 개설 후 수의미생물학을 담당하였다. 수의학과 신설 후 김용필(1955.5.25~ 1966.10.25, 수의

병리학), 손제영(1955. 6.1~1971.5.2, ·수의전염병학), 모기철(1955.9.30. ~1992.2.29, 수의해부학), 조한철(1956.10.31~1968.5.29, 수의공중위생학)을 초빙하여 6명이 초기 멤버로 구성되었고, 외부의 강의지원은 이방환(전북대,가축내과), 이성희(전북대, 가축외과학), 김대수(경북의대, 생리학), 이영춘(경북의대, 조직학), 배중호(경북의대, 약리학)등이었으며, 김수환 추기경의 출강(라틴어)이 특이하다. 이외에 1960년대까지 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을 이끌어 준분은 이현범(1956.1.7~1998.2.28, 수의내과학), 장인호(1962.12.5~2002.8.31, 수의산과학), 김화식(1963.1.7~1972.10.19, 수의병리학), 박준형(1964.8.1~2000.2.29, 수의약리학), 이차수(1967.4.19~2003.2.28, 수의병리학), 최원필(1968.9.2~2003.2.28, 수의미생물학), 탁연빈(1969.11.25~2003.8.31, 수의공중보건학) 등이다. 1977년 1월에 전임교수 10명이었는데 수의학과 통폐합으로 인한 수의학과의 폐지와 부활의 여파로 6명의 교수 전입(경상대 5명, 제주대 1명)이 있었고, 수의과대학의 수업연한 연장으로 인한 교수충원과 자연증가 등으로 현재 전임교수 22명에 이르고 있다.

수의학과 설치 2년 후인 1956년 10월 임상실습과 교수연구의 목적으로 농과대학 부속 가축병원이 건립되어 개원하였으며 초대 원장으로는 손제영 교수가 맡았다. 대학원(수의학과) 개설은 1958년 3월에 수의형태학, 기능수의학, 예방수의학, 임상수의학의 4개 분야의 석,박사과정이 인가되었다. 석사과정의 첫 졸업생은 1960년 3명(김교준, 김화식, 박준형)이었으며 박사학위는 연구과를 설치하여 1963년 5월에 김용필이 첫 취득자가 되었다. 정규과정의 첫 박사학위 취득자는 1974년 8월 유창준이었다.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1954년 교과과정에 특이한 과목(전공교과목이라 표기)은 식물학(2), 나전어(2), 가축학총론(2), 가축병리해부학각론(3), 의학조제학(3), 의학행정(1)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특이하지만 몇몇 대학에 있었던 졸업논문은 없었다. 20년 후인 1974년 교과과정에 수의학입문을 의미하는 듯 1학년에 학기마다 수의외과학(1) 수의외과학실습(1)이 있는 것이 특이하였다. 또한 현장실습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영농실습(1)이 3학년 1학기과 4학년 1학기에 각각 있었고, 4학년2학기에는 농촌지도론(2)이 편성되어 있었다. 다시 20년 후인 1994년은 1학년에 매학기 수의해부학(2), 수의해

부학실습(1)이 있었고 임상과목에서 과목당 있던 실습이 통합실습으로 수의임상실습 1~6으로 편성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은 관립 대구고등농림학교(1943년12월1일 인가, 1944년 4월1일 개교)에서 출발하여 대구농림전문학교(3년제), 대구농과대학을 거쳐 1952년 4월 1일 국립 경북대학교 농과대학이 되면서 현재의 캠퍼스인 산격동에 1951년 4월에 정착하게 되었으며, 하성진, 이학철 교수가 손잡고 설립(1954년 4월)한 수의학과는 5.16 군사정변으로 인한 일시적인 정원 감축(62년부터 40명에서 25명으로 감축)과 1974년 통폐합으로 인한 폐과와 1976년의 부활(30명)을 거쳐 1981년에는 정원이 40명이 되었으며, 1988년 수의과대학으로 승격(정원 60명)되었으며, 1998년에는 수업연한 6년의 수의과대학이 되었다.

4. 경상대학교 수의과대학

대학의 성장과정은 대체로 도립 초급대학, 도립 4년제 대학, 국립으로 이관, 종합대학으로 발전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도립 초급대학이 설립될 당시는 초기 경비마련을 위해 기성회가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진주에서도 마찬가지이어서 대학설립을 위한 기성회가 조직(1946)되었고, 진주농림학교 재학생에게까지 회원권을 나누어주고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판매하도록 독려하였으며, 이들 학생이 후에 진학을 하여 첫 졸업생이 되기도 하였다. 대학이 처음 설립될 당시는 진주농림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로 갈등이 있었으나 기성회 이사가 전부 진주농림학교 출신이었고 대학설립추진위원회는 진주농림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철암동 92번지로 이사하기까지 6년 9개월 동안 진주농과대학은 진주농림학교의 직간접적인 도움을 받았다.

진주농과대학은 수원농과대학(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흔히 있었으나 수원농림전문학교가 서울대학교 농과대학으로 되었기에 역사적으로 수원농과대학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명명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이리농과대학, 대구농과대학, 광주농과대학, 춘천농과대학의 뒤를 이어 설립인가를 받게 된 것이다.

진주농림학교과 진주농과대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주농림학교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진주농림학교는 1910년 4월30일 진주공립실업학교로 개교(2년제, 1학년)하여 다음 해 11월 진주공립농업학교로 개칭하였다. 진주농

업학교의 사정도 그 당시 다른 농업학교와 비슷하여 교장은 일본인이었고 교유(정교사) 중 한국인은 1명이었다. 1943년 4월 1일에 수의축산과가 신설되었으며, 해방 후 진주공립농림학교(1946년 3월 1일), 진주공립농림중학교 (6년제, 1946년 8월 31일), 진주농림고등학교(3년제, 1951년 8월 31일), 진주농림고등전문학교(1965년 1월 22일), 진주농림전문학교(1973년 12월 19일), 진주농림전문대학(1979년 1월 1일), 진주산업대학교(1993.3.1)에 이어 경남과학기술대학교(2010.8.25)로 이어져 왔다.

한편 '경남 도립 초급 진주농과대학'이 인가된 것은 미군정의 마지막 날인 1948년 8월 14일이었으며 농학과 (40명) 1학급, 총 학생정원은 80명이었으며, 10월 20일 개교하였다. 이 당시에는 진주농림학교 교사(校舍) 일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초대학장은 진주농림학교 교장을 겸무하였다. 그러나 진주농과대학에 비하여 학생 수가 월등히 많은 진주농림학교는 상대적으로 홀대를 받고 또한 진주농림학교 구내에 진주농과대학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 부지를 빼앗긴다는 생각 아래 배척 운동이 일어나 진주농과대학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부지를 빼앗긴다는 생각 아래 배척 운동이 일어나 진주농과대학은 새로운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다. 1955.7.15. 새로운 부지로 이전한 곳이 칠암동 92번지(현 의학캠퍼스)로 이전하였으며, 이곳에 1957년 9월 10일 가축병원이 기공(102평 규모)되었고 12월 2일 완공되어 가좌캠퍼스로 이전할 때까지 학생들의 임상실습과 교수연구에 이용되었다.

농학과 설립 후 1951년 6월 20일 임학과(40명, 1951.6.20)가 설립되었고 이듬해에 축산학과(40명, 1952.6.20)가 설립되었으며, 1953년 2월 2일 2년제(초급)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1955년 3월 15일 수의학과가 신설되어 같은 해 4월 40명이 입학하였으며 1959년 3월 26명이 졸업함으로써 첫 수의학사가 배출 되었다.

수의학과 신설은 축산학과에서 가축질병학을 담당한 형성해(53.04~71.12)가 원봉래(54.05~77.04, 수의해부학)를 진주로 초빙하고 두 사람이 손잡고 신설하여 유태석(57.4~82.02, 수의약리학) 이정열(57.4~63.05, 수의내과학), 박무현(59.4.6~89.02.28, 수의외과학), 박응복(61.3~77.05, 수의병리학), 마점술(63.6~77.05, 수의미생물학) 정순동(64.7 ~71.03, 수의생리학)이 초빙되었으며, 이정열의 후임으로 이희석(63.5~77.04, 수의내과학), 그리고 허린수(66.4~77.04, 수의생화학), 김종섭(66.3.103.02.28,

수의조직학), 권해병(66.10~ 77.04, 수의산과학), 문무홍(66.10~77.04, 수의기생충학), 강호조(67.6~77.04 수의공중보건학)등이 학과를 이끌었다. 대학원 석사과정은 1981.3.1에 신설되었으며, 첫 졸업은 1984.2 정현식, 조성근, 이국천이 있었고, 박사학위 신설은 1983.3.1 개설되었는데 박사학위 첫 취득자는 1988.8 함태수이었다.

수의학과 통폐합이 이루어지는 1973년을 기준으로 14명의 전임교수가 있었는데 이 무렵 이른 바 대체학과라는 이름으로 낙농학과, 식품가공학과, 식품영양학과가 신설되었으나 기초과목의 경우는 유사강좌를 찾을 수 있었지만 임상과목은 찾기가 쉽지 않았고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의 '누구는 된다. 누구는 안된다'는 씩의 말이 돌아 현실적으로 대학 자체에서 해결하기는 불가능하였다. 그래서 문교부의 정책적 배려로 경북대(5명), 서울대(3명), 전남대(1명)로 자신의 T.O.를 갖고 전보하게 하였고, 일부는 다른 학과로 이동하였지만, 한 분은 결국 대학을 떠났다.

교과과정을 알아보기 위하여 1955년 입학생(졸업 59년)의 4년 동안 학과목을 살펴본 결과 라전어(2학점), 가축위생학(3), 수의조제학(4학점), 졸업논문(6학점)이 있었고 축산학 관련 과목이 상당히 편성되어 있었는데, 축산원론, 가금학, 사료학을 비롯하여 양돈을 지칭하는 돈학, 양봉학을 지칭하는 토봉학(당시는 양봉보다 토종벌 기르는 것에 치중하던 뜻)이 특이하다. 64년 입학생의 학과목을 보면 10년 전에 비하여 라전어, 수의조제학, 졸업논문은 학과목에서 사라졌고, 가축위생학 대신에 수의공중위생학이 등장하면서 학점도 증가하였고, 현재는 수의공중보건학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선택 과목으로 축산학 과목인 가축사료학, 가축영양학, 양봉학이 있는데 그 명칭은 현재와 동일하다. 6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학과목의 명칭도 임상과목이 기초과목보다 먼저 '가축'에서 '수의'로 변화하고 있었다. 71년 입학생의 학과목에는 가축이라는 명칭은 전부 수의로 변경되어 있었다. 이에서와 같이 '가축'이 '수의'로 전환된 것은 1960년대 중반부터 시작하였으며, 70년대 초반에는 거의 모든 과목이 수의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가축병원이 동물병원으로 불리게 된 것은 시중에서는 60년대 중반부터 한 두 곳씩 동물병원으로 불리다가 현재는 가축병원이라 불리는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동물병원이라는 명칭이 보편화되었다. 한편 농과대학 수의학과 시절에는 대학에 따라서는 부속동물병원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부속가축병원으로 불리어졌고(대학설치

기준령 설비부분에 가축병원이라 명시) 법령이 개정되는 공식적인 절차는 수업연한 연장(6년제)이 처리되는 일련의 과정(대통령개정, 1996. 5. 20)으로 공식화 되어 명실공히 수의과대학 부속 동물병원으로 불리게 되었다. 한편 대학설치기준령도 대학설립운영규정의 제정(1996. 7. 26)으로 폐기됨에 따라 대학에서의 가축병원이라는 표현은 소멸되었다.

1998년 입학생(수의예과)부터 수업연한이 6년이 되고 국립대학의 경우 수의예과 소속을 자연과학대학에 묶어두었던 교육부의 방침이 2000년대 후반부터 각 대학의 학칙에 위임함에 따라 예과에도 수의학 관련과목(세포생물학 및 실험, 의학통계학, 신경과학, 동물유전학 등)이 추가되었고 본과 4학년에는 1학기(필수)에 동물행동학, 동물신경근내과, 동물심혈관신장내과, 수의마취학 등 선택과목 중에는 병원경영학, 동물유전의학, 임상변식학, 수의수액료법, 수생동물환경학, 응용수의생리학실기, 응용수의생화학실기 등이 특이하다. 2학기(필수)에는 동물소화기내과, 동물혈액종양, 동물호흡기내과, 동물피부내분비내과, 병원실습 등 그리고 2학기 선택과목으로 수의안과학, 응급처치학, 말의학, 응용수의약리학실기 등 임상과목이 세분되어 있고 4학년 선택과목으로 기초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의 경우 2007년도 학기부터 교과과정의 큰 변화를 가져왔다. 실제 임상의 기회를 늘리기 위하여 쿼터제(1년 동안의 과정을 3/4년에 이수하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성적처리하는 학기제로 함)를 도입하여 모든 교과과정을 4학년1학기까지 이수하도록 하고 4학년 2학기에는 모든 학생이 수련과정과 같은 '병원실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더하여 2012년에는 4학년 1학기과정을 '병원실습'으로 하고 2학기는 졸업 후 자신의 진로에 맞추어 심화실습 과정을 선택하도록 하는 교과과정을 2013학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소동물 수의사로 활동하기를 원하는 경우 4학년 1년 동안 소동물 진료에 참여할 수 있게 함에 따라 졸업 후 사회 진출의 적응기간을 단축하려 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제도가 정착해감에 따라 졸업 후 실시하는 인턴제도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다.

입학정원의 변화는 1955년 40명의 첫 모집 후 40명으로 유지되다가 1961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한 대학정원 감축으로 1962년 3월 20명으로 감소한 입학정원은 1973년의 수의학과 통폐합 발표로 1974년부터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었다가 1979년 수의학과 부활(40명)이 이루어졌다. 농

과대학 수의학과는 1988년 수의과대학으로 분리(승격)되었으며, 1995년 50명으로 증원되었으며, 1998년에는 수업연한 6년의 수의과대학이 되었다.

- 다음호에 계속 -